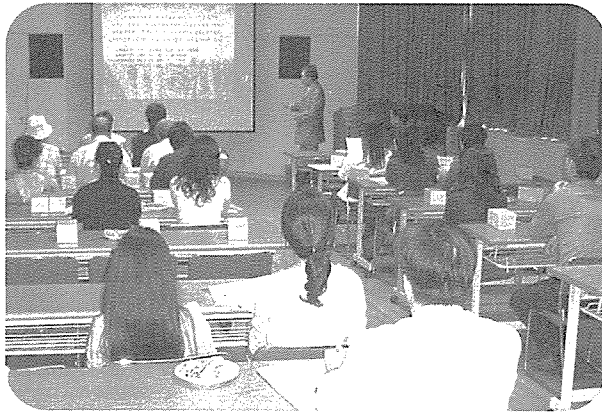


안정적 식량생산 필수 '농약의 순기능' 처음으로 이해

농약 필요성 · 안전성 대부분 공감,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

한 국작물보호 협회(회장 염병만)가 지난해부터 홍보역량을 소비자 중심에 모으기로 한 가운데 도심지 여론 주도층에 대한 농약안전성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

작물보호협회는 최근 농약 및 국내 농산물 안전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사용으로 인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생산, 공급보다는 농산물중 농약잔류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떨쳐내지 못하는 등 아직까지도 농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핵심 여론 주도층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.

지난 10월 19일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20여명을 초청, 대전 소재 동부한농 농업기술연구소 및 바이엘 대전공장에서 행사를 가진데 이어, 지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은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소속 임원단 40여명을 초청, 농약 개발과정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는 「농약안전성 세미나」를 갖고 선진 연구 및 제조시설을 견학하는 등 농약에 대한 올바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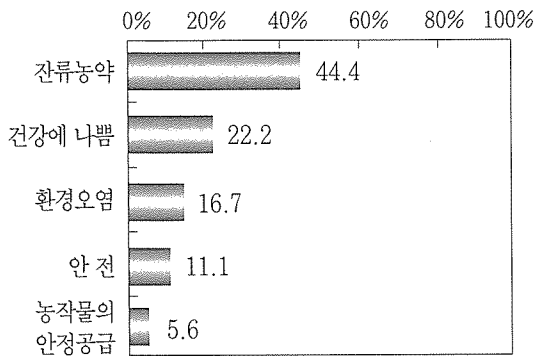
인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가졌다.

경주 소재 (주) 경농 중앙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된 첫날 세미나에서 대구대 이영득 교수는 강의를 통해 농약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의 오류

와 농약의 역할 및 필요성, 개발과정,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고 특히 주부들의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 소비자단체 종사자들의 올바른 역할과 이해를 당부했다. 또 세미나 후에는 동 연구소 황인천 소장의 안내로 선진 연구시설을 견학하였으며 이튿날인 10일에는 경농 대구공장을 방문, 최신 자동화 제조시설을 견학하고 제조환경 및 생산 현장 종사자들의 건강을 묻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.

여기서는 지난 10월 19일 가진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초청, 농약안전성 세미나 직전 및 제조공장 견학직후에 실시한 앙케이트 조사결과를 통해 방송작가들이 말하는 농약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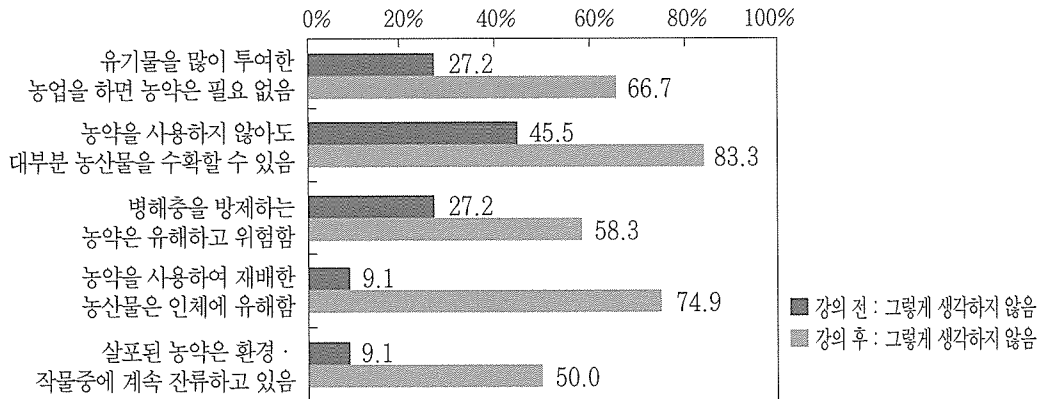
■ 농약하면 떠오르는 것



이날 농약 및 우리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기 전 농약에 대한 참가자의 인식은 예상대로 부정적 인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케 했다. 농약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참가자들은 「잔류농약」 「건강에 나쁨」 「환경오염」 등을 꼽아 부정적 인식이 무려 83.3%에 이르렀으며 「안전」 「농작물의 안정공급」은 16.7%에 그쳐 주최측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.

■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

강의 전 농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보면 「농약의 필요성」이나 「수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」이라는 인상보다는 「농약으로 재배한 채소는 인체에 유해함」, 「병해충을 방제하는 농약은 유해하고 위험」, 「살포된 농약은 환경이나 작물 중에 계속 잔류됨」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의 후에는 인식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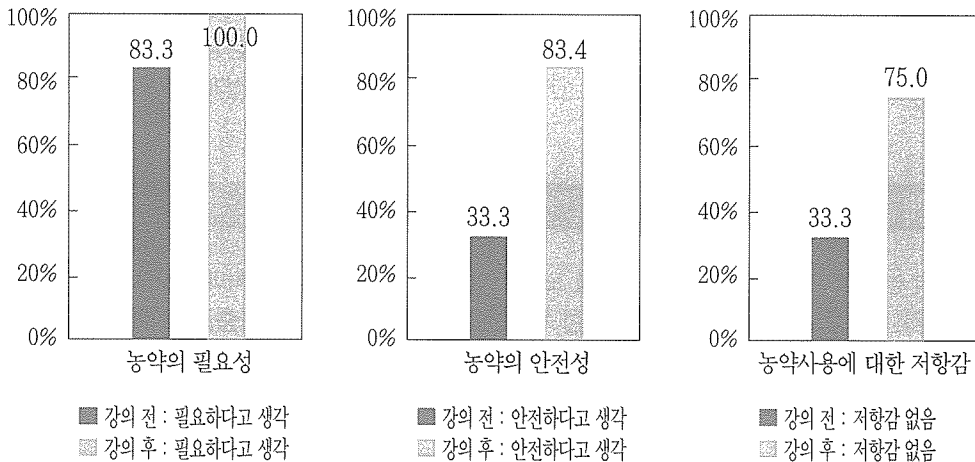


■ 농약사용에 대해 부정적 이유

농약사용에 대해서는 강의 전 참가자의 66.7%가 「부정적이다」고 답했다. 그 이유로는 「안전성이 불안하기 때문」이 41.7%로 가장 많았고 「자연적으로 재배된 것이 좋기 때문」과 「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」이 각각 25.0%, 「특별한 이유 없이 감각적으로 싫기 때문」이 8.3%로 나타나 역시 과학에 기초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 강의 후에는 「그래도 화학물질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」한다는 16.7%의 소신파(?) 만이 「약간 부정적이다」고 답해 인식의 변화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.

■ 농약의 필요성 · 안전성,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

세미나 참가자의 농약에 대한 이해의 효과는 생각보다 컸다. 특히, 농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의 전 · 후에 무관하게 모두 공감하고 있었으나 특히 강의 후에는 100%에 이를 만큼 필요성에 크게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안전성에 대한 의식도 강의 전 33.3%에서 강의 후에는 83.4%에 이르렀으며 농약사용에 대한 저항감도 훨씬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.



■ 불안 · 저항감 불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

강의 후 참가자들은, 농약에 대한 불안감이나 저항감 불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「등록 농약은 사용방법을 지켜서 사용하는 한 안전」, 「제초제는 농업노동의 경감과 생산성 향상에 공헌」, 「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해충이나 병 때문에 대부분 수확할 수 없음」이라는 응답이 각각 66.7%로 가장 높았다. 다음으로 「농약에는 발암성이 인정되지 않음」, 「사람의 몸속에 들어온 미량의 농약은 위나 간에서 분해되어 인체에 남지 않음」순으로 대답했다.

■ 세미나 및 공장견학 후의 의식 · 행동변화

농약 세미나 및 제조시설 견학후의 의식변화는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. 「전에는 농약의 농지만 들어도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농약의 순기능을 알게 됨」 또는 「감동적」, 「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시간이 짧아 아쉬움」, 「21세기 화학혁명을 인간에 이롭게 발전시켜야지 부정하고 비판만 해서는 안 됨」 등 긍정적인 견해가 많았으나 「여전히 화학물질 농약은 인체에 유해하다」는 견해도 눈에 띄었다. 개선점으로는 「실제 잔류농약의 경감 장면이나 살포장경 또는 살포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함」 등 직접 보고 만져보는 등의 보다 더 알찬 세미나를 기대한다는 의견도 있었다. ♪